

押海 丁氏 始祖 丁德成

編輯者

압해 정씨의 시조는 대양군(大陽君)으로 이름은 덕성이며, 당나라 덕종 16년(A·D 800년) 경진 10월 13일에 남양 대천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종 9년(A·D 814년)에 14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태자궁 설차, 평장시 부시나랑, 현관부사를 거쳐 문종 때에 대승상이 되었으며, 무종 때에 대승상 겸 대양군에 봉작되었다.

선종 7년(A·D 853년)에 임금께 직간한 것이 진노를 받아 20년간 신라에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시 대사마 대장군인 장남 정열도와 우부상식인 차남 정응도와 함께 그의 나이 54세인 신라 문성왕 15년(A·D 853년)에 압해도에 입도하였다.

신라왕이 수차에 걸쳐 입궐하기를

청하였으나 본국에서 죄를 지은자가 타국의 예우를 받을 수가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본국에서 귀국하도록 종용하였으나 그는 “나이가 많고 병이들어 몸이 쇠약하니 배를 타고 돌아가지 못하겠다며 이 나라도 예의 있는 나라이니 이곳에서 머무르겠다”고 전하였다.

이에 다시 귀국을 재촉하므로 “신은 나이가 100세가 가까우므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간곡히 사양하며 여생을 보내다 신라 진흥왕 7년(A·D 893년) 3월 1일 94세의 일기로 압해도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아들 두 형제를 두었는데 그의 장남 정열도는 신라의 기성군에 봉작되어 영광 정씨의 시조가 되고, 둘째 아들 정응도는 금성군에 봉작되어 나주 정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 후 고려조와 이조 시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은 공신, 충신, 명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전국에 산재된 영광, 나주 창원의 정씨가 대양군의 후손이기에 압해를 관향(성향)으로 사용하고, 이곳 압해도를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었다.

그의 묘는 가룡리 2구에서 3구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정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남 기성군 정열도의 묘는 동서리에서 대천리로 넘어가는 잔등인 구남봉에 위치하며, 둘째 아들 금성군 정응도는 정승동 좌편에 위치하고 있다.

향토 문화

면암 최익현과 흑산도

編輯者

면암 최익현 선생의 친필 “기봉강산 홍무일월(箕封江山 洪武日月)의 8자는 선생이 유배생활을 했던 흑산면 천촌리(淺村里)에 있는 지장 바위에 새겨져 있다.

또한 면암 최선생 적로 유허비는 선생의 고매한 애국 정신과 후학 양성을 위한 노고를 잊지 못해 1924년 9월에 그의 문하생인 오준선, 임동선 등이 뜻을 모아 지장암 바로 앞에 세운 것이다.

학자이며, 의병장기도 했던 선생은 1833년(순조 33년) 음력 12월에 경기도 포천에서 동중추 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익현자는 찬겸 호는 면암이다.

당시의 거유인 이항로 선생의 문인으로 22세 때 반궁(泮宮-지금의 성균관)에서 수업했으며, 1855년 철종 6년 춘도기(春到記) 명경과(明經科) 순통(純通)으로 급제했다.

그 후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